

계승과 혁신으로 민속식품 널리 알리려다

‘김희떡집’ 90 후 녀사장 김혜성과의 인터뷰



‘김희떡집’ 사장 김혜성

2024년 6월 2일, 웃음과 폭죽 소리 속에서 장춘시 조양구 건국남로에 위치한 ‘김희떡집’이 개업을 알리며 손님들을 맞이하였다. 가게 사장은 90 후 김혜성. 상해에서의 고수업 직장을 뒤로 한 채 단연 장춘으로 돌아와 창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계승과 혁신으로 조선족 음식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다.

기자: 어떤 계기로 창업하려 하였는지요?

김혜성: 저의 아버지는 민속음식에 대한 감정이 깊습니다. 떡과 김치 등 민속음식 관련 사업을 다년간 해왔어요. 제가 창업을 결심한 것은 아버지한테서 받은 영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비록 외지에서 근무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전통음식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번 창업은 부모님을 대신해 민속사업을 이어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제가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것이기도 하죠. 저 또한 의미있는 사업에도 전하기를 즐기며 일단 시작하면 좋은 결과를 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편이죠.

기자: ‘김희떡집’의 제품은 어떤 특점이 있는지요?



개업을 축하하러 온 래빈들

김혜성: 저희는 조선족 전통떡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데 원재료는 최상급을 사용하며 첨가제, 방부제 등을 전혀 쓰지 않기에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떡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만드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레를 들어 ‘떡 섞기’ 단계에서는 국산 기계가 정교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 수 없고 ‘분쇄’ 단계에서는 국산 기계가 갈아내는 분질이 섬세하지 않기에 한국에서 떡기계를 직접 수입해 제품의 식감을 더욱 섬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품도 고품질, 흑설당 맛, 팥맛 등으로 점점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15 가지 종류가 있으며 앞으로 25 가지 종류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기자: 떡가공 솜씨는 어디서 배웠는지요?

김혜성: 떡을 잘하는 분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한국, 국내 어디든 다 찾아다니며 배웠죠. 그중 많은 기술은 한국에 계시는 선생님께서부터 배웠습니다. 그분은 거의 20년 동안 전통떡 제조에 종사해왔으며 저에 대한 요구 또한 매우 엄격하였습니다. 원재료 관리와 가공, 세부사항까지 낱알이 따지는 분이기에 저는

‘대중’과 ‘비슷하게’로 떡을 만들어서 안된다는 점을 지금까지 명기하고 있습니다.

기자: 민속음식 특히 떡집의 전망과 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혜성: 장춘지역을 볼 때 조선족이 직접 떡을 만들고 운영하는 가게가 아주 적습니다. 저는 조선족의 가장 전통적인 솜씨로 정성이 담긴 떡을 고객들에게 대접하고 싶습니다. 떡은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식품이고 또 건강한 식품이기에 금후 발전 전망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개업하기 전 시범적으로 판매를 시작했는데 단골도 생겨 지금은 더욱 신심 가득합니다.

기자: 앞으로 운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요?

김혜성: 가맹 비용 없이 대리상을 모집해 그들과 윈윈할 계획이 있습니다. 100 키로미터를 반경으로 수퍼, 농산물시장, 학교 주변 편의점 등 대리상들에게 떡을 배달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당일 생산한 떡을 아침 7시에 대리상들에게 배송해주고 당일 판매되지 못한 떡은 가게 문

을 닫기 전에 회수해 제품 품질을 보장하려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 판매 외에도 ‘메이뽀’ (美团) 등과 같은 온라인에서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취재를 마치고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개업하기 전 그의 ‘힘들었던’, ‘자랑스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김사장의 개업을 축하하러 온 그의 한 친구는 “혜성은 떡을 만드는 일을 정말 좋아합니다. 과거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면서 늘 크고 작은 상처를 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매일 새벽 4~5시에 일어나 떡을 만드는데 그 열정과 노력은 저희가 따라배워야 할 점입니다.”라고 탄복한다.

김사장의 절친 리녀사는 “저는 영광스럽게 그가 만든 첫번째 떡을 맛보는 주인공에 당선되었죠. 그후에도 번마다 새 제품을 개발해내면 신이 나서 저를 찾곤 하였어요. 저는 그를 통해 조선족의 음식과 문화를 더 잘 료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대도시의 삶을 포기하고 이번 창업을 선택한 것은 전통음식에 대한 계승이기도 하고 이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이기도 하죠.”라며 엄지를 내든다.

/ 손행빈기자

주택시장에 부는 ‘중고제품 보상교환판매’ 바람

주택시장에서도 ‘중고제품 보상교환판매’ 바람이 불고 있다. 관련 부문의 통계에 따르면 상해, 광둥, 심주 등 1선 도시와 정주, 무한, 소주, 장사 등 2선 도시를 비롯해 70 개가 넘는 도시에서 주택 ‘중고제품 보상교환판매’ 관련 정책을 내놓았다.

5월 27일, 광주시부동산산업협회, 광주시부동산중개협회는 ‘중고제품 보상교환판매’ 행사 참여 리스트를 발표했다. 리스트에는 총 70 여개 프로젝트, 30 여개 중개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지금까지 광주시에서 진행된 두차례의 ‘중고제품 보상교환판매’ 프로젝트는 200 개에 육박하고 협력 중개기관은 44 개로 집계됐다.

광주시부동산산업협회가 밝힌 행사 프로세스에 따르면 주택 ‘중고제품 보상교환판매’ 행사는 참가 신청, 신축 주택 매수, 기존 주택 매도, 거래 완료 (혹은 환불) 등 4 단계로 진행된다. ‘주택 갈아타기’를 원하는 행사 참가자는 기존 주택이 약정 기간 내 매도되면 부동산개발기업과 약정한 대로 신축 주택 거래 수속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만약 매도되지 않으면 참가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부동산개발기업은 무조건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때 참가자는 어떠한 위약 책임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상해시 부동산산업협회, 부동산중개협회가 공동 발족한 상품주택 ‘중고제품 보상교환판매’ 행사에 참여한 부동산개발기업은 20 여개, 부동산중개기관은 10 여개에 달했다.

심수시의 경우 기존 상품주택 (로후 주택)을 매도하고 신규 상품주택 (신축 주택)을 매수할 계획이 있는 모든 주민에 대해 1년간 ‘중고제품 보상교환판매’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주택 ‘중고제품 보상교환판매’를 전면 시행하는 도시도 있다. 정주시는 5월 10일부터 국내 최초로 시범기간, 시범 시행 구역 제한을 폐지하고 하이테크산업개발구, 경제개발구 등 관할구를 대상으로 주택 ‘중고제품 보상교환판매’ 정책 전면 시행에 돌입했다.

정주시는 올해 주택 ‘중고제품 보상교환판매’ 목표치를 1만채로 설정했다. 그중 정주도시발전그룹이 매수해 시범단계에서 ‘주택 갈아타기’를 완료한 주택은 500 채에 달하고 올해 5천채를 완료할 계획이다. ‘중고제품 보상교환판매’를 통해 신축 상품주택으로 갈아탄 주민은 취득세 보조금 30%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기존 주택을 매도하려고 내놓은 고객 대부분이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갈아타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는 개선형 주택 수요의 확대 공간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쉽지 않은 주택 매도, 짧지 않은 주기 등 요소가 ‘주택 갈아타기’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에서 출시한 정책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어 부동산 업계의 안정적인 건강 발전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신화넷

‘흥변부민’ 생방송으로 농산물 판매에 조력



근일 길림성농업농촌청, 길림성주최한 ‘흥변부민’ 전자상거래 첫 활동이라고 소개하면서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통해 농민들의 판매와 배송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의 농산물이 도시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길림성우정분회사 책임일군은 앞으로 계속하여 각측의 협력을 결집시키고 우정자원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길림성 농산물의 전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민 소득 증가와 변형 마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길림일보

중국경제포럼 참가자들 : 길림성 경영환경 지속 호전

‘신질생산력, 신동력발전’을 주제로 한 제 19 회 중국경제포럼이 일진 길림시에서 개최되었다. 중국경제포럼은 《인민일보》가 주최하고 《인민일보》 산하 《중국경제주간》이 주관하는 대규모 경제년례회의이다. 2001년에 처음 개최된 중국경제포럼은 올해까지 18 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언론주도, 정부지원, 경제공동발전’이라는 좋은 포럼 효과를 형성하여 경제, 학술 등 분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포럼에 초대된 각 분야의 인사들은 길림성의 자동차산업, 빙설경제, 현대농업 등과 관련해 신질생산력을 추동하고 신동력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할 것을 제안했다. 빙설 프로젝트

공훈 운동선수 무대정은 “빙설문화를 통해 국제적으로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경성적으로 외국의 청년들과 빙설문화에 관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그들이 우리 동북의 독특한 빙설자원과 빙설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려다. 또한 그들이 이런 문화와 정보를 그들의 나라에 전달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중국제 1 자동차그룹 리사장이며 당위 서기인 왕국강은 발언에서 “우리는 전면적, 전방위적, 전체적, 전과정적, 전원 (全员) 적으로 신에너지 자동차로의 전환을 확고히 하려고 한다. 2025 년말까지 중국제 1 자동차 그룹에서는 30 개 종류의 신에너지 자동차를 출시하게 된다. 그중에는 흥

기 8 개, 펜티엄 6 개, 해방 상용차 10 개 등 24 개 자체 브랜드 신에너지 제품이 포함된다. 래년말까지 중국제 1 자동차그룹은 신에너지 자동차로의 전면적인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실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광건국 중국세계무역기구연구회 부회장은 “길림성의 변화는 경영환경의 변화와 지속적인 호전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레를 들어 인제가 되돌아오는 현상도 있고 투자가 증가하는 조짐도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길림성의 경영환경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면서 다음 단계에 봉사업 발전에 특별한 중시를 기울일 것을 제안했다.

장광위성기술회사유한회사 리사 회 리사 주서비는 “농업에서의 위성 원격탐지기술의 응용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부터 회사에서는 길림시의 중신식품유한회사 시범구로 이 지역에서 ‘전-공-지’ 즉 위성 원격탐지기술, 드론 원격탐사, 지면 모니터링 일체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스마트 농업 건설을 전개해 수준 높은 농지의 응용 시스템, 농업 상황 모니터링, ‘전장제’ (田长制) 응용 등 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히면서 길림성에서의 지혜농업 시범을 통해 북쪽으로 흑룡강성 북대항으로부터 남쪽으로 해남성까지 제품을 보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손행빈기자

중한 다국전자상거래좌담회 연결서

5월 31일, 연결시상무국은 중한 다국전자상거래좌담회를 열고 소통 교류의 플랫폼을 일층 구축하고 중한 다국전자상거래 발전을 추동했다.

좌담회 기간 회의에 참가한 기업 대표단은 열렬한 분위기 속에서 연결의 다국전자상거래종합시범구 우대정책, 종합플랫폼 기능, 중한 다국전자상거래 발전 사례 등을 둘러싸고 교류와 토론을 펼쳤다. 연결시상무국전자상거래협회는 연결시상무국전자상거래종합시범구 발전 정황 그리고 종합봉사 플랫폼 시스템과 기능을 소개했다.

연결시는 전국 한국상품집산지로서 우수한 제품과 씨비프로 해외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리철수기자

제 1 자동차, 케니아와 트럭 1,000 대 수출 계약



일진 제 1 자동차그룹은 아프리카의 케니아 TAM 회사와 케니아 수도 나이로비에서 트럭 1,000 대를 수출할 데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제 1 자동차그룹은 2005년에 케니아 시장에 진출한 이래 현지 자동차 시장의 법규와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현지 구매자들에게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고효율 봉사를 제공해왔다.

중형 트럭과 대형 트럭 분야에서 제 1 자동차그룹은 경량화 새시 터프 V20 트럭을 수출하여 낮은 에너지 소모와 감량된 차체 중량 그리고 우세한 가성비로 현지에서 잘 팔

리는 트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품질면에서 성능이 뛰어난 JH6형 트럭을 수출하여 제 1 자동차그룹의 브랜드 경쟁력을 일층 제고했다. 경형 트럭에서 제 1 자동차그룹은 JK6, 타이거 VR 등 외관과 동력, 적재량이 우수한 신형의 차종으로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보편적인 환영을 받았다.

1,000 대 트럭 수출 계약식에서 제 1 자동차그룹 책임자는 향후 케니아 시장의 성장점을 틀어쥐고 더욱 우수한 제품과 씨비프로 해외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길림일보